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사회적 점화에 나타난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이 유 선

사회적 점화에 나타난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지도교수 박 유 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이 유 선

이유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만 3세 전후인 2.5세~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를 비교하고,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점화되는지, 특히 사회적 유대와 배척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 초기의 동조 행동 및 동조의 동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 전후 아동의 동조는 객관적 정답 유무(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세 전후 아동의 동조는 사회적 관계(물체, 1인, 마주봄, 등짐)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아동 88명에게 점화단계와 동조 과제를 실시하였다. 먼저, 점화단계에서 아동은 비사회적 물체, 혼자 있는 사람, 또는 마주 보거나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사진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나서 동조 과제에서 아동은 보기와 같은 모양을 고르거나(지각적 판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개인적 선호) 과제를 제시받았다. 아동은 자신의 답을 말하기 전에, 세 명의 또래가 무엇을 고르는지를 관찰하였다. 이후 아동이 선택한 답을 연구자가 코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이항검정,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Mann-Whitney U검정,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2.5세에서 3.5세 아동은 전반적으로

동조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의 영역보다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의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하였다. 둘째,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의 영역에서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보다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장면에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이 점화되었다. 반면에,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의 영역에서 아동의 동조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3세 전후 아동이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라 동조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사회적 배척 관계의 회피가 아동의 동조에 중요한 동기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주요어 : 동조, 객관적 정답 유무, 사회적 관계, 점화, 3세 전후 아동
학 번 : 2020-21331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아동의 동조 행동 ····· 7
   1) 동조의 개념 ····· 7
   2) 동조의 발달과 측정 ····· 8
   3)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동조 ····· 11
2. 동조의 동기 ····· 14
   1) 사회적 동기 ····· 14
   2) 3세 전후 아동의 동조의 동기 ····· 18
3. 사회적 점화 ····· 19
   1) 점화 ····· 19
   2)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점화 ····· 20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23

1. 연구문제 ····· 23
2. 용어의 정의 ····· 23
   1) 동조 ····· 24
   2) 객관적 정답 ····· 24
   3) 사회적 관계 ····· 24
   4) 점화 ····· 25

IV. 연구방법 및 절차 ····· 26

1. 연구대상 ····· 26
2. 연구도구 ····· 28

1) 점화용 자극 ····· 28
2)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 29
3) 또래의 선택 영상 ····· 32
3. 자료 수집 절차 ····· 32
1) 예비조사 ····· 33
2) 본 조사 ····· 33
4. 자료의 분석 ····· 38

V. 연구결과 및 해석 ····· 39
1. 기술통계 ····· 39
1) 아동의 동조율 ····· 39
2) 아동의 동조와 우연수준의 비교 ····· 41
2.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의 차이 ····· 43
3. 사회적 점화에 따른 점화의 차이 ····· 44
1) 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 ·· 44
2) 객관적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 ·· 45

VI. 결론 및 논의 ····· 47

참고문헌 ····· 54
부록 ····· 61
Abstract ····· 74

표 목 차

<표 Ⅳ-1> 연구참여자의 평균 월령 ····· 26
<표 Ⅳ-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7
<표 Ⅳ-3> 점화용 사진 자극 ····· 29
<표 Ⅳ-4> 지각적 판단 영역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 30
<표 Ⅳ-5> 개인적 선호 영역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 31
<표 Ⅳ-6> 또래의 선택 영상 예시 ····· 32
<표 Ⅴ-1>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동조율 ····· 39
<표 Ⅴ-2> 아동의 동조율과 우연수준의 비교 ····· 41
<표 Ⅴ-3> 객관적 정답 유무에 따른 동조의 차이 ····· 43
<표 Ⅴ-4>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동조한 아동의 수 분포 ····· 43
<표 Ⅴ-5>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의 차이 ····· 44
<표 Ⅴ-6>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의 차이 ····· 45

그 림 목 차

<그림 Ⅴ-1>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동조율 분포 ····· 40
<그림 Ⅴ-2> 객관적 정답의 유무와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율 평균 ····· 46

부 록 목 차

<부록 1> 아동용 구두설명 보조자료 ····· 61
<부록 2> 연구자용 응답 기록지 ····· 62
<부록 3> 연구자용 대본 ····· 63

I. 문제 제기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의 의견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집단 내 다수(majority)의 의견이나 선택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것을 동조(conformity)라 하는데(Boyd & Richerson, 1988; Cialdini & Goldstein, 2004; Gaither et al., 2018; Jiang et al., 2015; Leeuwen et al., 2016; Morgan et al., 2015; Sun & Yu, 2016), 이러한 동조 행동의 출현 시기, 동조의 동기, 동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Tomasello, 2019).

동조 행동을 관찰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동조는 2세 이후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난다(Asch, 1956; Cordonier et al., 2018; Corriveau & Harris, 2010; Corriveau et al., 2009; Gaither et al., 2018; Haun & Tomasello, 2011; Haun et al., 2014; Jiang et al., 2015; Kim & Markus, 1999; McGuigan & Stevenson, 2016; Morgan et al., 2015; Schillaci & Kelemen, 2014; Sun & Yu, 2016; Vollmer et al., 2018; Walker & Andrade, 1996; Zhang et al., 2017). 즉, 2세 아동부터 성인들까지 다수의 행동이나 의견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동조는 사람 얼굴에 대한 호감도와 같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영역뿐만 아니라(예: Sun & Yu, 2016), 사물의 길이 비교와 같이 객관적이고 지각적인 판단의 영역(예: Asch, 1956; Corriveau & Harris, 2010; Haun & Tomasello, 2011; McGuigan & Stevenson, 2016)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새로운 기계장치의 사용법과 같은 지식 영역에서도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 지식을 다수가 제시하면 그에 따라 의견과 행동을 바꾸는 동조가 나타난다(예: Haun et al., 2014).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동조 행동의 동기(motivation)로 제시한 것은 크게 정보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은 다수가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Haun & Tomasello, 2011). 아동이 집단 내 소수(minority)에 속하는 정보제공자보다 다수(majority)에 속하는 정보제공자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결과(Corriveau & Harris, 2010)와, 특히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상황에서 더 많이 동조한다는 연구결과(Corriveau et al., 2009; Schillaci & Kelemen., 2014)는 이러한 정보적 동기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한편, 동조가 정보적 동기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고 타인 또는 집단과의 '관계'를 위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다(Haun & Tomasello, 2011). 2세와 4세 아동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누군가가 관찰을 하거나 알 수 있을 때 더 많이 동조한다(Haun & Tomasello, 2011; Haun et al., 2014). 또한, 5세 아동은 동조가 타인과 친구 관계를 맺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Cordonier et al.,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기부터 아동의 동조에는 사회적 동기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유아기부터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동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조의 이러한 사회적 동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Maslow, 1943)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영아기부터 사회적 미소(Spitz & Wolf, 1946), 모방(Nielsen, 2006), 돕기(Over & Carpenter, 2009a) 등 여러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특별한 사람과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충족되지 못하면 영아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Tronick, 2007), 유아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한다(Watson-Jones et al., 2014). 나아가, 성인들은 사회적 배척의 느낌을 경험하고 나서 더 많이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였다(Williams et al., 2000). 그러나 현재까지 동조가 확인된 가장 어린 연령인 2세 아동에서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조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3세를 전후한 시기의 아동들이 사회적 동기로 인한 동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음을 알고,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Botto & Rochat, 2019). 또한,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자극을 보면 사회적 배척을 인지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Hwang et al., 2017), 사회적 배척 자극을 본 후 모델의 표정을 더 많이 모방한다(de Klerk et al., 2020). 더불어, 3세경 아동은 집단의 구분과 '우리(we)'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된다(Lane et al., 20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3세 전후의 아동이 집단 내에서 자신이 받게 될 평가에 민감하고, 나아가 집단에서의 배척을 피하고자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인과 비슷하게 사회적 배척의 회피 또는 유대감 회복을 위해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세에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살펴본 연구는 Haun과 동료들(2014)이 지식의 영역(새로운 기계의 사용 방법)에서 시연자의 존재를 조작하여 알아본 것뿐이다. 이들은 2세에서 3세 아동에게 먼저 낯선 기계의 사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 후, 시연자들이 그와 다른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동에게 다시 그 기계를 사용할 기회를 주되, 이 때 시연자들의 존재 여부를 조작하였다. 만약 아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한다면, 시연자들이 아동의 선택을 지켜보지 않을 때보다 지켜볼 때에 아동의 동조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은 시연자가 자신의 기계 사용을 지켜볼 때 더 많이 동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un과 동료들(2014)은 2세부터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가 나타남

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Haun과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는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인해 사회적 동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아동이 시연을 보는 동안 시연자들과 그들이 보여준 기계 사용법이 연합되어, 시연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기계 사용법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동의 주의를 더 끌었기 때문으로 결과가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시연자의 존재 유무를 조작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2세에서 3세 아동의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아동의 동조가 시연자의 유무에 따라 영향받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조의 사회적 동기를 입증하고자 했으나, 사회적 동기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동기에 의해 아동이 동조하는지, 어떤 사회적 관계가 아동의 동조를 더 촉진하는지를 3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모방, 돕기 등 영유아의 여러 행동은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유대 관계의 동기와, 타인에게서 배척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회적 배척 회피 동기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Klerk et al., 2020; Over & Carpenter, 2009a; Over & Carpenter, 2009b). 이 점에 기초하여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배척 관계가 어린 아동들의 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점화(priming)가 사용될 수 있다. 점화는 특정 행동과 그 동기 사이의 암묵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처리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Weingarten et al., 2016). 점화를 사용한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주로 성인이 주시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에 선행 자극(예: 단어)을 제시하여 연구참여자가 해당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게 한 뒤, 이후 목표 행동을 측정하였다(Bargh & Chartrand, 2000;

Chartrand & Bargh, 1996; Lakin & Chartrand, 2003). 아동을 대상으로도 사진 또는 동영상 자극을 사용한 점화연구가 이루어졌다. Over와 Carpenter(2009a)는 영아를 사회적 관계(예: 긍정적인 관계, 부정적인 관계 등)를 암시하는 인형과 비사회적 관계를 암시하는 블록 사진 자극에 노출하고, 이후에 영아가 연구자에게 자발적인 도움을 얼마나 빠르게 제공하는지 측정하여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해 도움 행동이 점화되는지를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영아는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암시하는 장면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암시하는 장면을 본 경우에 더 빨리 자발적 도움 행동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움 행동의 동기로서 긍정적인 사회관계 즉,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 행동(예: 모방 등)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점화 방법이 사용되었다(Over & Carpenter, 2009a; Over & Carpenter, 2009b; Song et al., 2015). 따라서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행동의 사회적 동기를 상세히 알아보는 방법으로 점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행연구는 길이가 같은 막대를 고르거나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동조가 나타남을 보였지만, 객관적인 정답의 유무에 따라 동조를 보일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더 긴 막대를 고르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반면, 자신이 더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는 개인적 선호 영역은 주관적 영역으로 객관적인 정답이 없다. 사람 얼굴에 대한 호감도에서 동조를 살펴본 Sun과 Yu(2016)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영역 간 동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차이가 나타날지에 대한 구체적 예측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동조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동조 행동 자체뿐 아니라 생애 초기

의 인간의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2세에서 3세의 아동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 이다(Botto & Rochat, 2019; Zhao et al., 2018). 또한, 2세 아동은 선호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이해하여 자신과 타인의 선호가 다를 수 있고, 선호는 사람 특정적(person specific)이라는 것을 안다(Buresh & Woodward, 2007; Fawcett & Markson, 2010; Ma & Xu, 2011). 따라서 만약 이 시기 아동이 집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위한 동조를 한다면, 아동은 객관적 정답이 있는 경우(예: 지각적 판단 영역) 다수의 응답과 아동 자신의 응답이 일치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느낄 수 있다. 정답이 있는 경우 모두의 응답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개인에 따라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다른 답을 하여도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조하지 않을 경우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더 많이 동조하고,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다 덜 동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율의 차이를 직접 밝힌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아동의 동조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두 영역에서의 동조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만 3세 전후인 2.5세에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의 영역에서 동조를 비교하고,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점화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아동의 동조가 성인과 같이 사회적 배척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3세경 아동의 동조 행동 및 동조의 동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의 동조 행동과 동조의 동기, 사회적 점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1. 아동의 동조 행동

1) 동조의 개념

동조(conformity)의 포괄적 정의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다수(majority)의 영향이 미치는 것(Boyd & Richerson, 1988)이다. 즉, 동조란 집단 내 대다수의 타인이 보이는 행동이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연구자가 동조의 정의에 다수에 의한 영향을 포함시켰다. 가령, Jiang과 동료들(2015)은 다수에게 행동을 맞추는 것으로, Leeuwen 등(2016)과 Morgan 등(2015)은 다수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Gaither과 동료들(2018)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동조를 정의하였다.

한편, 좁은 의미의 동조는 다수의 영향 뿐 아니라 행동이나 의견의 '변화'까지도 정의에 포함한다. 즉, 개인이 다수에 맞추어 원래의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동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Cialdini와 Goldstein(2004)은 개인의 행동을 타인들에게 맞추어 바꾸는 것으로 동조를 정의하였으며, Sun과 Yu(2016) 또한 다수의 행동을 채택하여 개인의 행동 경향, 태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동조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영향과 개인의 행동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동조의 정의를 따라,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의견을 변화시

키는 것'으로 동조를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2) 동조의 발달과 측정

동조가 인간의 생애 발달에서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만 2세 이후 유아기(Cordonier et al., 2018; Corriveau et al., 2009; Corriveau & Harris, 2010; Haun & Tomasello, 2011; Haun et al., 2014; McGuigan & Stevenson, 2016; Morgan et al., 2015; Schillaci & Kelemen, 2014; Sun & Yu, 2016; Vollmer et al., 2018)부터 학령기(예: Jiang et al., 2015; Walker & Andrade, 1996; Zhang et al., 2017), 그리고 성인기(예: Asch, 1956; Gaither et al., 2018; Kim & Markus, 1999)까지 인간발달의 여러 단계에서 동조가 나타남을 밝혔다. 즉,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행동은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른 유아기에 이미 나타난다는 경험적 증거가 풍부하다.

이처럼 동조 행동이 유아기부터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라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길이를 비교하는 과제에서 성인의 동조를 살펴본 Asch(1956)의 연구에서, 성인들은 평균 0.37의 동조율을 보였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유아를 대상으로 길이를 비교하는 과제를 제시한 Haun과 Tomasello(2011)의 연구에서 4세 아동은 평균 0.32의 동조율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유사한 길이 비교 과제를 사용하되, 정보제공자가 한 번도 정답을 말하지 않고 모든 시행에서 오답만을 말한 Corriveau와 Harris(2010)의 연구에서는 3세, 4세 아동이 각각 0.21과 0.19의 동조율을 보였다. 이렇게 낮은 동조율이 나타난 이유로, 연구참여자가 정보제공자를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더 낮은 동조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동조 행동은 유아기부터 관찰되나, 동조를 할 확률은 맥락적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동조를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면서도 방법론적 공통점을 보인다. 즉, '다수의 전략을 관찰하기 전의 행동 확인', '다수의 전략 관찰', '다수의 전략 관찰 후의 행동 측정'의 순서로 구성되며, 다수의 전략 관찰 후에 다수의 전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하면 이를 동조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Haun과 Tomasello(2011)는 크기 비교 과제를 사용하여 4세 유아가 동조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 유아가 다수의 전략을 관찰하기 전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크기 비교 능력이 있는 유아에게 다수의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후, 연구참여 유아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 전략을 따라 응답을 변경하면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전략을 관찰하기 전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행동이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관찰 전 행동 확인 단계 없이 바로 다수의 전략 관찰 단계부터 시작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예로, Asch(1956)는 사물의 길이 비교와 같이 명확하고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과제를 성인에게 제시하여 동조를 알아보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성인)가 다수의 전략을 관찰하기 전에 정답을 알고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바로 다수의 타인이 오답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연구참여자가 다수의 대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오답을 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사물의 상대적 길이에 대해 다수가 말한 오답을 말하면 동조했다고 판단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즉, 유아의 발달수준에서 답을 알 수 있는 개수 비교(McGuigan & Stevenson, 2016), 크기 비교(Haun & Tomasello, 2011), 길이 비교(Corriveau & Harris, 2010) 과제

를 제시하고, 유아가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또래가 연구참여 유아의 판단과 다른 오답을 택하는 것을 관찰한 후, 다수가 선택한 오답을 따라 응답하면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연구는 객관적인 '답',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적인 선호(personal preference)의 영역에서 동조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표적으로 Sun과 Yu(201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6세 아동에게 사람 얼굴에 대한 선호 점수를 매기게 한 뒤, 다수의 또래가 아동과 다르게 점수를 매기는 것을 보여주고, 이후에 아동이 선호 점수를 바꾸는지 조사했다. 이러한 선호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호가 다수의 응답을 관찰한 후에 변화하는지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knowledge)을 습득하고, 다수가 그 지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뒤, 다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는지 알아보았다. 그 예로, Haun과 동료들(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먼저 2세 아동에게 세 가지 색의 상자로 구성된 낯선 장치를 소개하고, 세 개의 상자 중 특정 상자에 공을 넣어야 보상이 제공됨을 아동이 배우도록 하였다. 아동이 주어진 장치의 사용법을 배웠다고 판단되면, 세 명의 또래 시연자가 다른 방법(아동이 공을 넣은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공을 넣는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아동이 처음에 배운 방법이 아닌 시연자의 방법을 따라하면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2세 아동은 실제로 새로운 기계의 사용법을 터득한 후에도 세 명의 또래가 똑같은 기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를 따라 동조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동조가 확인된 가장 어린 연령이다.

이상의 동조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연구들은 연구참여자의 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 지식에 반하는 다수의 판단, 선호, 지식을 제시하고, 그 영향을 받아 연구참여자의 의견이 변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동조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중 지각적 판단이 다수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지를 본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이러한 연구들에서 성인과 아동 모두 동조 행동을 보였다. 특히 유아기부터도 동조 행동이 나타나고 현재까지 동조를 보인 최연소 연령은 2세이다. 셋째, 비록 성인과 아동이 동조 행동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은 항상 동조함, 즉 동조율 1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동조율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에서 성인 또는 아동들은 전체 시행 중에서 동조하는 경우보다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동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여러 영역에서 동조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동조하는가는 연구들에서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이 다수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행동이 언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유아들도 동조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유아들로 하여금 동조하게 하는 동력(driving force) 또는 동기(motivation)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동이 동조를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변인은 객관적 정답이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적 선호 과제에서 6세 아동의 동조를 조사한 Sun과 Yu(2016)는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가지 옳은 답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동의 동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가능성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에 관해서는 예측을 제시하지 않았다.

크기 비교나 길이 비교(예: 어느 것이 더 긴가)와 같이 객관적으로 옳은 한 가지 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한 가지 답을 제외한 다른 답(들)은 틀린 답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답이 동시에 타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이 다수와 다른 답을 한다면 어느 한 쪽은 타당하지 못한 답이므로, 아동은 자신과 다른 응답을 한 다수의 타인들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다수를 따라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인적 취향, 기호, 선호 등과 같이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답이 공존할 수 있다. 즉, 각자 다른 응답이 가능하고, 다름이 용납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아동이 다수와 다른 답을 해도 타인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객관적 정답이 있는 상황에 비해 다수와 같은 답을 해야한다는 압력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3세 전후의 아동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2세에서 3세 아동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판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Botto & Rochat, 2019; Zhao et al., 2018).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2세 아동은 선호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이해하여, 자신과 타인의 선호가 다를 수 있으며, 선호는 사람 특정적(person specific)이라는 것을 안다(Buresh & Woodward, 2007; Fawcett & Markson, 2010; Ma & Xu, 2011). 즉, 선호에 관해서는 한 가지 정해진 옳은 답이 있기보다 사람마다 다른 답 또는 반응을 할 수 있음을 2세 이후 아동은 알고 있다. 따라서, 3세 전후의 아동들은 객관적 정답이 있는 상황보다 객관적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 적게 동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 경향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객관적 정답이 있는 상황이나 없는 상황 중 어느 한 가지 상황에서의 동조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는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동조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동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동조 행동을 하는지와 같은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에서 객관적 정답의 유무 조건에 따른 동조 경향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라 아동의 동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객관적 정답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3세 전후 아동이 더 많이 동조하는지를 직접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동조의 상황은 연구참여자가 사물의 길이와 크기, 개수 등 지각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객관적 정답을 맞추는 상황(예: Asch, 1956),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상황(예: Sun & Yu, 2016), 지식에 기반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상황(예: Haun et al., 2014) 등이 있었다. 즉, 동조는 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 지식의 영역에서 조사된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중 개인이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지각적 판단(perceptual judgment) 영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이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해 더 좋아하는 주관적 감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개인적 선호(personal preference)의 영역은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영역, 즉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율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종합하면, 3세 전후의 아동은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개인적 선호 영역보다 객관적 정답이 없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 직접 검증해보고자 한다.

2. 동조의 동기

선행연구들은 인간이 동조를 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동조의 동기는 크게 정보적(informational) 동기와 사회적(social) 동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Haun & Tomasello, 2011). Haun과 Tomasello(2011)에 의하면, 정보적 동기는 다수가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롭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며,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Gaither와 동료들(2018)은 동조의 동기를 정보적(informational) 동기와 규범적(normative) 동기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적 동기란 타인들의 판단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따르는 것이며, 규범적 동기는 동질적인(homogeneous) 집단에 속하거나 타인에 의한 수용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1) 사회적 동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인간에게 타인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Maslow(1943)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면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의 욕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Over, 2016).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영아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생후 6주에서 10주

에는 사회적 미소를 짓고(Spitz & Wolf, 1946), 1세에는 성인과 대화하듯이 번갈아가며 소리를 내고, 미소 짓는(Trevarthen, 1990) 등 타인과 관계맺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는 1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의 모방(Nielsen, 2006), 돕기 행동(Over & Carpenter, 2009a)이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외에도 3세 아동은 타인과 협동하거나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면 타인과 협동하는 것을 선호한다(Rekers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생애 초기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특히, 아동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 동조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다(Cordonier et al., 2018). 연구자들은 서로 친한 두 개의 인형과 이들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한 개의 인형이 각자 상자 안을 보는 인형극을 5세 아동에게 보여주었다. 두 개의 인형은 같은 것을 보았고 한 개의 인형만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준 후, 인형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하면 다른 인형들과 친해지고 싶은 인형은 실제로 본 것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인형들의 답을 따라 말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아동들은 만약 친해지고 싶다면 다른 인형들과 똑같이 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세경 아동이 동조를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인간이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배척을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본 연구들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 배척(ostracism)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고(ignored) 제외당하는(excluded) 것으로 정의된다(Williams et al., 2000). 사회적 배척을 인지하고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영아기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생후 1년이 되기 전인 영아도 어머니가 갑자기 상

호작용을 중단하면 다시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리키기, 미소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며, 그래도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재개하지 않으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Tronick, 2007). Over(2016)는 이러한 영아의 모습을 타인에게 외면당하는 것 즉, 사회적 배척에 대한 민감성으로 해석하였다.

사회적 배척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되찾고자 하는 동기로 특정 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Watson-Jones와 동료들(2014)은 3세에서 6세의 아동이 사회적 유대를 암시하는 영상 자극(네 개의 모양이 함께 다니는 모습)보다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영상 자극(세 개의 모양이 한 개의 모양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관습적 행동을 더 많이 모방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 배척에 노출된 아동이 다시 유대감을 찾고자 관습적 행동을 모방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성인의 동조를 조사한 Williams와 동료들(2000)도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면 동조 경향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가상의 인물 두 명과 함께 공놀이를 하는 경우, 가상의 인물들이 연구참여자에게만 공을 주지 않는다면 배척당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자들의 예상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공을 받지 못한 것이 지속될수록 자신이 배척당하였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경험을 한 집단보다 그렇지 않은 집단이 이후에 더 많은 동조를 하였다.

이처럼 성인은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로 동조를 하는 것으로 주장되었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동기가 상대방의 행동의 모방을 촉진한다는 증거만 있을 뿐(Watson-Jones et al., 2014), 집단 내의 다수를 따라서 원래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동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편, 3세 아동이 동조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McGuigan & Stevenson, 2016; Corriveau & Harris, 2010) 중 정보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밝힌 연구는 여럿 있지만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McGuigan과 Stevenson(2016)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은 정보제공자가 또래일 때보다 성인일 때 더 많이 동조하였다. 아동은 성인을 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따라하는 것이 배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정보적 동기의 동조를 확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orriveau와 Harris(2010)의 연구는 3세 아동이 집단 내 다수(majority)에 속하는 사람을 더욱 신뢰롭다고 평가하고, 이들에게 동조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또한 3세가 정보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 3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동조의 사회적 동기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가 있다. Haun과 동료들(2014)은 새로운 지식 습득의 영역에서 2세에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에게 세 가지 색의 상자로 구성된 낯선 장치를 소개하고, 세 개의 상자 중 특정 상자에 공을 넣어야 보상이 제공됨을 아동이 배우도록 한다. 아동이 주어진 장치의 사용법을 배웠다고 판단되면, 세 명의 또래 시연자가 다른 방법(아동이 공을 넣은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공을 넣는 방법)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보고 나서 아동이 처음에 배운 방법이 아닌 시연자의 방법을 따라하면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2세 아동이 사회적 동기로 동조한다면 시연자가 아동의 기계 사용을 지켜보지 않을 경우보다 지켜볼 경우에 더 많이 동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로 2세 아동은 시연자가 자신의 선택을 지켜보지 않을 때보다 지켜볼 때 더 많이 동조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동조의 사회적 동기를 밝힌 것이 아닐 수 있다. 시연자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특정한 방법과 시연자들이 연합되어, 아동이 다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시연자들의 존재가

해당 방법을 더욱 현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연자의 존재 유무가 아닌 다른 연구방법으로,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2세 아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동조를 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3세 전후 아동의 동조의 동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3세 전후 아동의 발달적 특징은 이 시기에도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로 동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선, 2세에서 3세 아동은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배척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Botto & Rochat, 2019). 예로, Botto와 Rochat(2019)에 따르면 생후 24개월에는 리모컨의 사용법을 배울 때 타인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버튼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버튼을 더 많이 누른다. 또한, Zhao와 동료들(2018)은 3세와 5세의 아동은 성인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보다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말을 들은 후에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3세도 똑똑하다(being smart)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3세 전후 아동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또한 2세에서 3세의 아동은 시각적 자료로부터 타인에 대한 배척을 알아차릴 수 있고, 사회적 배척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de Klerk et al., 2020; Hwang et al., 2017). 구체적으로 3세 아동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회적 배척이 일어나는 것을 제 3자로서 알아차릴 수 있고, 배척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Hwang et

al., 2017). 뿐만 아니라, de Klerk와 동료들(2020)은 2.5세 아동이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지 않는 자극(무작위로 움직이는 모양들의 영상)보다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자극(함께 이동하기를 거부하거나 공놀이에서 공을 주지 않는 모양들의 영상)을 보았을 때 타인의 얼굴 표정(눈썹 올리기 등)을 더 따라함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자극을 본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 위협을 느꼈으며 다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타인의 얼굴 표정을 따라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더해, 아동은 3세경부터 집단 구분을 인식하고(Lane et al., 2020), 점차 '우리(we)'를 인식하게 된다(Tomasello, 2019). 이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 사회적 배척에 대한 회피와 함께 고려할 때,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면서 아동은 점차 집단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민감해지고, 나아가 집단 속에서 배척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3세 전후 아동기에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 관계 및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동조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사회적 점화

1) 점화

점화(priming)란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처리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법이다(Weingarten et al., 2016).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내적 표상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된 반응이 촉진되어 나타나는 것이 점화이다(Yiend, 2010). 즉,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후의 행동과 관련되어야지만 점화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화를 행동과 그 동기 사이의 암묵적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동기가 되는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게 한 후에 목표 행동이 얼마나 많이 또는 빨리 나타나는지 측정하여, 목표행동과 동기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Lakin과 Chartrand(2003)는 점화 방법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무의식적인 모방의 동기가 사회적 관계 추구라는 것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성인이 다른 자극보다 사회적 관계 추구를 암시하는 자극(예: “친구”, “함께” 등의 단어)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 모방(예: 얼굴 만지기)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성인이 주시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에 선행 자극을 단어로 제시하여 연구참여자가 해당 개념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게 하고, 이후에 목표 행동을 보이는지 측정하였다(Bargh & Chartrand, 2000; Chartrand & Bargh, 1996; Lakin & Chartrand, 2003).

2)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점화

아동을 대상으로도 점화 방법을 통해 행동과 동기 사이의 암묵적 관계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단,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점화방법을 적용해 연구할 때에는 단어를 점화 자극으로 사용한 성인 대상 연구와 달리 동영상 또는 사진이 점화 자극으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생후 18개월 아동의 도움 행동의 동기가 타인과 유대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밝힌 연구를 들 수 있다(Over & Carpenter, 2009a). 해당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의 중심에 나오는 주요 물체 뒤에 인형 또는 블록을 제시하여 이를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돕기 행동의 동기가 사회적 유대를 맺고자 하는 마음인지를 알

아보기 위해, Over와 Carpenter(2009a)는 점화자극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관계를 여러 가지로 조작하였다. 즉, 물체 조건에서는 블록 두 개가 놓여진 상황을(사회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대상이 비사회적 사물임), 1인 조건에서는 하나의 인물이 홀로 서 있는 상황을(대상은 사람이나 사회적 관계가 없음), 마주봄 조건에서는 두 인물이 마주보아 유대하고 있는 상황을(대상이 사람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유대감임), 등짐 조건에서는 두 인물이 등지고 있어 배척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대상이 사람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나, 사회적 관계가 부정적인 배척을 암시함) 사진으로 나타냈다. 영아에게 이러한 점화자극(사진)을 보여준 후에, 연구자는 영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상황에서 영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얼마나 빨리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마주봄 조건의 영아들은 나머지 다른 조건들의 영아들보다 더 빨리,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움 행동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대를 맺고 싶어 하는 동기에서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Over와 Carpenter(2009b)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척에 대한 위협이 모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점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은 여러 모양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영상에서는 두 개의 모양이 한 개의 모양을 배척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지 않는 영상에서는 두 개의 모양이 함께 움직이고 주변에 나비(모양과 무관한 자극)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영상을 본 아동은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지 않는 영상을 본 아동보다 더 많이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동영상 자극을 사용한 Song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4세와 5세 아동을 동영상 자극에 노출한

후에 아동에게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영상을 본 아동은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지 않는 영상을 본 아동보다 자기 자신과 친구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그리는 등 훨씬 더 친밀한 관계의 그림을 그렸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아동이 사회적 배척에 노출된 후에 유대감을 더욱 추구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외에 앞서 언급한 de Klerk와 동료들(2020)의 연구도 점화방법을 사용하여 2.5세 아동이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영상을 본 후 타인의 얼굴 표정을 더 따라함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노출 후에 점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알아보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행동의 사회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으로 점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Over와 Carpenter(2009a)가 사용한 사회적 점화(social priming) 방법을 차용하여 물체, 1인, 마주봄, 등짐 조건으로 점화자극을 조작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illiams et al., 2000)에서와 유사하게 사회적 배척이 동조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3세 전후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는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다른 사회적 점화 조건보다 인물들이 등을 지고 있는 자극에 노출된 조건의 아동들이 가장 높은 동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만약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동조 행동의 동기를 똑같이 얻는다면 마주봄과 등짐 자극에 노출된 아동들의 동조 경향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동조가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촉진된다면, 물체 조건에서만 동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아동들의 동조에 사회적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모든 조건에서 동조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용어를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만 3세 전후인 2.5세에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답의 유무가 다른 두 영역, 즉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의 영역에서 동조를 비교하고,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는지, 특히 사회적 유대와 배척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기 초기인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행동 및 동조의 동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3세 전후 아동의 동조는 객관적 정답 유무(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3세 전후 아동의 동조는 사회적 관계(물체, 1인, 마주봄, 등짐)에 따라 다르게 점화되는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주요 용어인 동조, 객관적 정답, 사회적 관계, 점화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1) 동조

선행연구에서 동조란 개인의 의사결정에 다수의 영향이 미치는 것(Boyd & Richerson, 1988), 개인의 행동을 타인들에게 맞추어 바꾸는 것(Cialdini & Goldstein, 2004)으로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영향과 개인의 행동 변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동조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2) 객관적 정답

본 연구에서 객관적 정답이란 개인의 관점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옳은 답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답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보다 길이가 긴지, 어떤 그림이 다른 그림과 완전히 같은지 아닌지 등과 같이 지각적 판단(perceptual judgment)을 요하는 과제에서는 객관적 정답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개인이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해 더 좋아하는 주관적 감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개인적 선호(personal preference)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정답이 없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정답 유무에 따라 지각적 판단(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과 개인적 선호(객관적 정답이 없는 영역)로 동조가 일어나는 영역을 구분한다.

3)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사회적 관계(사물끼리의 관계를 맺는

상황, 또는 사람이 있으나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있는 상황), 사회적 유대 관계(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 사회적 배척 관계(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상황)로 사회적 관계를 조작적 정의한다.

4) 점화

점화(priming)란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후에 제시되는 자극의 처리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방법이다(Weingarten et al., 2016). 점화를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구참여자를 행동의 동기가 되는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게 한 후에 목표 행동이 얼마나 많이 또는 빨리 나타나는지 측정하여, 목표행동과 동기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조 행동과 그 동기(사회적 관계) 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밝히는 연구방법으로 점화를 조작적 정의한다. 동시에, 먼저 제시된 비사회적, 사회적 관계를 암시하는 자극에 의해, 이후에 아동이 보이는 동조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을 동조 행동이 점화된 것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기술한다. 먼저 연구대상과 연구도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와 자료 코딩 및 분석 방법을 서술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해당하는, 발달지연 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바가 없는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사회적 관계 점화가 아동의 돕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Over & Carpenter, 2009a)에서 점화 조건별로 15명의 아동을 최종 분석에 포함한 것을 참고하여, 점화 조건별 20명으로 정하였다. 또한 조건별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였다. 각 조건에 참여한 아동들의 평균 월령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참여자의 평균 월령

점화 조건			
물체	1인	마주봄	등짐
35.21(3.00)	36.66(3.12)	35.69(3.61)	35.42(3.19)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최종 표본 크기인 80명의 자료를 얻기 위해 실제로는 88명의 아동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8명 중 5명은 연구에 대한 흥미 부족(3명), 연구참여 도중 다른 아동이 들어오는 개입(1명), 생리적 이유(1명)로 인해 연구참여를 중단했다. 나머지 3명은 연구참여를 완료했으나, 지각적 판단과제에서 보기와 똑같은 모양을 찾지 못하거나(2명), 개인적 선호과제에서 좋아하는 것을 고르지 못하여(1명) 제외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2>에 제시되어 있다. 출생순위는 둘째인 경우가 전체의 38.8%(3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동인 경우가 33.8%(27명)이었다. 거의 모든 아동(97.6%)이 보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육기관에 다닌 경우가 63.7%(51명)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70%(56명), 78.8%(63명)로 가장 많았다.

<표 Ⅳ-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 80)

		남아	여아	전체
출생순위	외동	13(33.3%)	14(34.1%)	27(33.8%)
	첫째	9(23.1%)	5(12.2%)	14(17.5%)
	둘째	13(33.3%)	18(43.9%)	31(38.8%)
	셋째 이상	4(10.3%)	4(9.8%)	8(10.0%)
보육기관 이용 경험	없음	1(2.6%)	1(2.4%)	2(2.5%)
	1～12개월	8(20.5%)	7(17.1%)	15(18.8%)
	13～24개월	23(59.0%)	29(70.7%)	52(65.0%)
	25～36개월	7(17.9%)	4(9.8%)	11(13.8%)
보육기관 외의 또래 경험 (한 달 기준)	없음	7(17.9%)	9(22%)	16(20.0%)
	1～10번	24(61.5%)	27(65.9%)	51(63.7%)
	11～20번 이상	8(20.5%)	5(12.2%)	13(16.3%)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7(17.9%)	6(14.6%)	13(16.3%)
	대학교 졸업	29(74.4%)	27(65.9%)	56(70.0%)
	대학원 졸업	3(7.7%)	8(19.5%)	11(13.8%)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4(10.3%)	4(9.8%)	8(10.0%)
	대학교 졸업	29(74.4%)	34(82.9%)	63(78.8%)
	대학원 졸업	6(15.4%)	3(7.3%)	9(11.3%)

2. 연구도구

여기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점화용 자극, 그림카드, 또래의 선택 영상의 제작 및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1) 점화용 자극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점화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에게 동조 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제시할 점화용 자극을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아동에게 사진을 설명하는 동안 아동들이 점화되도록 한다는 목적에 따라 모든 점화용 자극은 <표 Ⅳ-3>와 같이, 중앙에 물체가 있고 그 오른쪽 또는 왼쪽 뒤에 인형 또는 블록이 나타나도록 연구자가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다. 중앙에 제시된 물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물체(Over & Carpenter, 2009a)를 참고해 아동에게 익숙할 만한 일상용품 8가지(주전자, 책, 신발, 컵, 바구니, 빗자루, 장갑, 칫솔)로 선정했다. 중앙의 물체 오른쪽 또는 왼쪽 뒤에 제시되는 장면은 다음의 네 가지로 만들어졌다. 먼저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기 위한 마주봄 조건의 사진자극에서는 두 개의 인물 인형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 장면을 암시하였다. 한편, 등짐 조건의 사진자극에서는 중앙의 물체의 오른쪽 또는 왼쪽 뒤에 인물 인형 2개가 서로 등을 지고 서 있어 부정적인 관계, 즉 사회적 배척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암시하였다. 다음으로, 비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자극으로, 물체 조건의 사진자극에서는 물체 뒤에 인형과 비슷한 크기의 블록 두 개가 놓여있거나, 1인 조건의 사진자극에서는 한 개의 인물 인형이 홀로 서있어 관계를 맺을 타인이 없는 장면을 암시하였다.

<표 Ⅳ-3> 점화용 사진 자극

물체 조건의 사진자극	1인 조건의 사진자극
인형과 같은 크기의 블록이 놓여 있음. 비사회적 관계 암시.	한 명의 사람이 서 있음. 상호작용할 타인이 없음 암시.
마주봄 조건의 사진자극	등짐 조건의 사진자극
두 명의 사람이 마주 보고 있음. 사회적 유대 관계 암시.	두 명의 사람이 등지고 있음. 사회적 배척 관계 암시.

2)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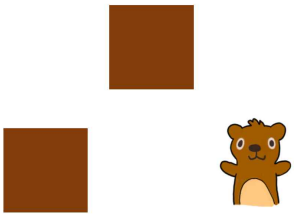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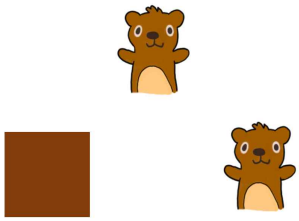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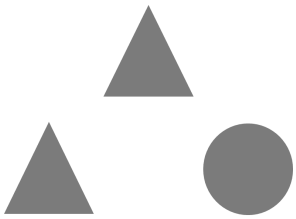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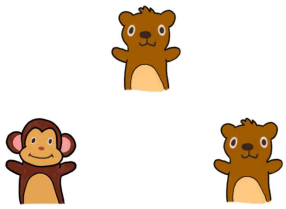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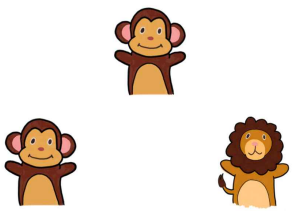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아동의 동조를 비교하고자 동조 과제의 그림카드를 제작하였다.

(1)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는 아동이 주어진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고르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원래 의견을 바꾸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총 5회의 시행이 제시되었다. <표 Ⅳ-4>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 장의 그림카드에는 세 개의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중 두 개는 같은 모양이고, 한 개는 다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는 모양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곰, 원숭이, 사자이다.

<표 Ⅳ-4> 지각적 판단 영역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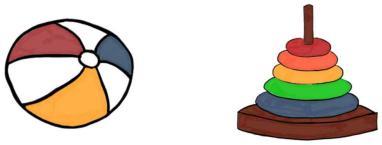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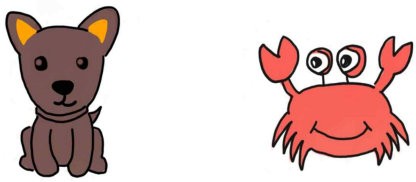
 확인 A	 확인 B
 1번(중립 문항)	 2번
 3번	 4번

(2)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는 아동이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총 다섯 번의 시행이 각각의 그림카드로 시행되었다. 그림카드에는 장난감(자동차, 기차, 공 등) 또는 동물(토끼, 고슴도치, 개 등) 쌍이 제시되었다(<표 Ⅳ-5> 참조). 이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것들로 구성되었으며 Yang과 Park(2022)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였다.

<표 Ⅳ-5> 개인적 선호 영역의 동조 과제용 그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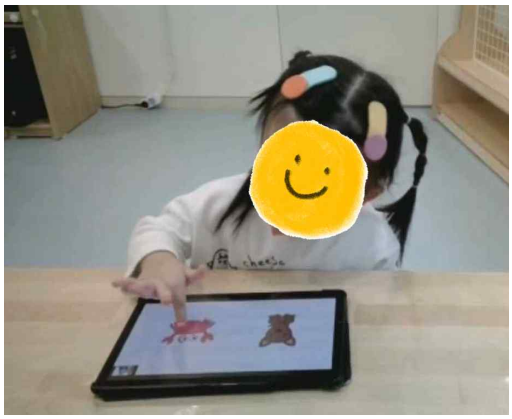
확인

 1번(중립 문항)	 2번
 3번	 4번

3) 또래의 선택 영상

또래의 선택 영상에는 동성 아동 세 명이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와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를 제시받고 선택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즉, 또래의 선택 영상은 성별에 따라 영상 총 두 개가 제작되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남아인 경우에는 남아 세 명이 등장하는 영상을, 여아인 경우에는 여아 세 명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라 동조 영상을 다르게 제작한 이유는 아동이 영상 속 또래의 성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래의 선택 영상의 예시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또래의 선택 영상 예시

	
남아 선택 영상의 예시	여아 선택 영상의 예시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IRB No. 2202/004-001).

1) 예비조사

과제 및 지시문의 적절성, 과제 소요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2.5세에서 3.5세 아동 4명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제 소요시간은 약 10분으로 나타났고, 지각적 판단 영역의 과제에서 아동이 “아래 있는 그림 중에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걸 찾아봐.” 라는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지시문을 “(연구자가 그림카드의 가장 위에 있는 모양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봐”로 변경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8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장에게 방문 허락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설명문 및 동의서에 대해 유선으로 설명한 후, 교사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서를 전달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보호자와 아동에 한해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테스트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의 조용한 공간(원장실, 교사실, 방과후 교실 등)이나 아동의 가정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기간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이 테스트 공간으로 들어오기 전 문, 책상 등 아동의 손이 닿는 곳을 살균 소독하

고, 살균 소독 물티슈와 손 소독제를 구비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스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와 연구 참여 아동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한 명의 아동의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였다.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모집문건을 보고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연락한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확인하여 아동의 연구 참여 가능 여부를 알리고 연구 참여가 가능할 경우에 참여일시를 정하였다. 연구자는 정해진 시간에 가정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쓰고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의 테스트가 끝난 후, 모든 연구도구를 소독하였다.

동조 테스트에 아동이 편안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아동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아동이 편안해진 후,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보조자료(부록 1)를 통해 아동에게 연구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보조자료에 제시된 예시문항을 통하여 연구자는 아동에게 똑같은 것을 고르거나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고 요청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안내를 듣고 아동이 연구 참여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면 테스트 절차를 시작하였다. 테스트는 먼저 점화단계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각적 판단에서의 동조 과제 및 개인적 선호에 대한 동조 과제를 실시하였다. 점화단계에서는 네 조건(물체, 1인, 마주봄, 등짐 조건)에 무선할당하여 각 조건의 그림자극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동조 과제 내에서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의 순서는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여 진행되었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각적 판단에서의 동조 과제는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개의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은 아동이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확인 문항을 가장 처음에 진행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각적 판단에서의 동조를 확인한 선행연구(Haun &

Tomasello, 2011; Walker & Andrade, 1996)에서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 실시되기 전에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아동의 지각적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을 배치한 것을 따른 것이다. 확인 문항은 네모와 곰 모양으로 구성되었다. 네모와 곰 중 어떤 모양이 보기 문항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모가 보기인 확인문항A와 곰이 보기인 확인문항B를 확인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즉, 확인 문제에서 절반의 아동은 네모가 두 개 나오는 그림카드를, 나머지 절반의 아동은 곰이 두 개 나오는 그림카드를 보았다.

확인 문항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이거랑(가장 위에 있는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똑같은 걸 찾아봐."라고 말한다. 이후 아동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모양 중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아동이 똑같은 모양을 찾지 못하면 연구대상에서 탈락하며, 아동이 똑같은 모양을 찾으면 중립 및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넘어간다. 확인 문항에서는 또래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후에 진행되는 네 개의 문항에서는 또래의 의견이 또래의 선택 영상으로 제시된다. 만약 네 개의 문항에서 모두 또래가 아동의 지각적 판단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면 아동은 영상 속의 또래가 고의적으로 반대로 대답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첫 문항으로 중립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지각적 판단 영역의 동조 과제를 사용한 선행연구(Asch, 1956; Haun & Tomasello, 2011; Vollmer et al., 2018)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다수가 정답을 말하는 중립 문항을 포함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중립 문항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라고 묻는다. 아동의 답을 들은 후 "그렇구나. 이번에는 ○○(이)와 나이가 같은 남자/여자 친구 세 명이 어떤 걸 골랐는지 영상으로 볼 거야. 친구들이 어떤 걸 골랐는지 잘 보고 알려

줘.”라고 이야기한다. 세 명의 동성 또래가 정답을 선택하는 영상을 본 후에 아동에게 “영상에 나온 친구들은 어떤 모양이 똑같다고 했어?”라고 물어본다. 이는 아동이 영상 속 또래의 선택을 제대로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만약, 아동이 영상 속 또래의 선택을 잘못 보았다면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다시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라고 묻고, 아동의 선택을 응답기록지(부록 2)에 적는다.

중립 문항 이후에 진행되는 세 문항은 실제 아동이 동조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이 문항들에서는 먼저 아동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성 또래 세 명의 동영상을 본 후, 아동으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게 하여 의견이 변하였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동영상에는 아동과 동성인 또래 3명이 오답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온다. 첫 번째로 제시된 확인 문항에서 정답을 맞히고, 또래의 영상을 보기 전에는 정답을 골랐던 아동이, 또래 세 명의 선택 영상을 본 후에 또래를 따라 오답을 선택한다면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개의 문항에서 아동이 또래의 지각적 판단에 동조하면 1점, 동조하지 않으면 0점을 주었다. 총 세 개의 문항에서 아동이 얻을 수 있는 동조 점수는 0점부터 3점까지였다. 아동의 점수는 총 세 번의 시행 중에서 아동이 동조한 횟수를 의미한다.

개인적 선호에서의 동조 과제에서도, 아동이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확인 문항이 시행되었다. 이후로 아동의 의심을 줄이기 위한 중립 문항,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세 문항이 진행되었다. 이때 확인 문항과 중립 문항, 확인 문항의 첫 번째는 장난감 쌍이, 확인 문항의 나머지 두 문항은 동물 쌍이 제시되었다.

과제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확인 문항에서 연구자는 장난감 쌍이 그려진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이)는 둘 중에 어떤 장난감이 더

좋아?”라고 묻는다. 이때 아동이 한 쌍의 장난감 중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지 확인한다. 만약, 아동이 선호하는 것을 고르기 어려워하거나, 고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며,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면 중립 및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넘어간다.

중립 문항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두 장난감/동물 중에 ○○(이)가 좋아하는 건 뭐야?”라고 묻는다. 아동의 답을 들은 후 “○○(이)랑 나이가 같은 남자/여자 친구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영상에 등장하는 또래들은 아동과 같은 선호를 보인다. 또래 영상을 보여준 후에 아동에게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장난감이 더 좋다고 했어?”라는 질문을 통해 아동이 영상 속 또래가 가리킨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아동이 영상 속 또래가 가리킨 것과 다르게 대답하면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다시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이)가 좋아하는 걸 다시 골라볼 거야. ○○(이)는 두 장난감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라고 물어본다. 연구자는 아동의 응답을 응답기록지(부록 2)에 적는다.

동조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중립 문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 개의 문항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립 문항과 달리 확인 문항에서는 3명의 동성 또래가 연구참여자와 다른 선택을 하는 동영상이 제공된다.

개인적 선호 영역의 확인 문항에서 아동이 또래의 개인적 선호에 동조하면 1점, 동조하지 않으면 0점을 주었다. 총 3개의 문항에서 아동이 얻을 수 있는 동조 점수는 0점부터 3점까지였다. 아동의 점수는 총 3번의 시행 중에서 아동이 동조한 횟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동조 점수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조율(0과 1사이의 값)로 변환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아동의 동조율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이항검정,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Mann-Whitney U검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사용된 통계 분석 방법을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5세에서 3.5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 동조 경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동조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우연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이항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가 객관적 정답의 유무(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관계(물체, 1인, 마주봄, 등짐)에 따라 다르게 점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개인적 선호 영역 각각에서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고, 사회적 관계 노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경우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해석을 연구문제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1.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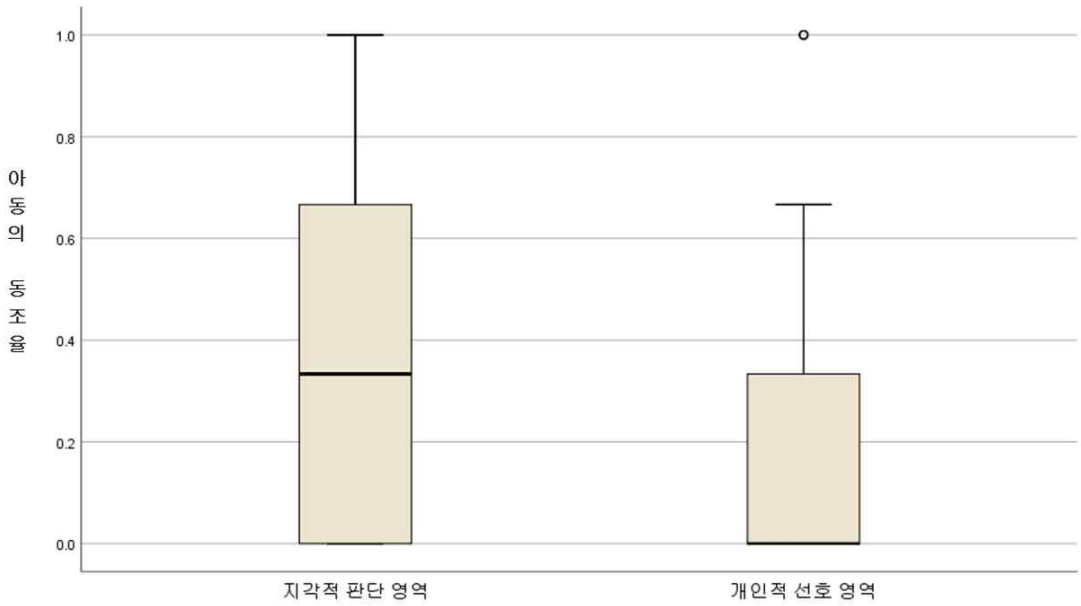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동조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동조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우연수준과 비교하였다.

1) 아동의 동조율

<표 V-1>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동조율

(N = 80)

영역	사회적 관계 조건	$M(SD)$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지각적 판단(객관적 정답 유)	물체	0.23(0.31)	0	0	1
	1인	0.35(0.37)	0.33	0	1
	마주봄	0.22(0.31)	0	0	1
	등짐	0.50(0.33)	0.67	0	1
	전체	0.33(0.34)	0.33	0	1
개인적 선호(객관적 정답 무)	물체	0.18(0.30)	0	0	1
	1인	0.25(0.32)	0	0	1
	마주봄	0.17(0.30)	0	0	1
	등짐	0.17(0.25)	0	0	0.67
	전체	0.19(0.29)	0.00	0	1
전체		0.26(0.25)	0.17	0	1



<그림 V-1>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동조율 분포

<표 V-1>은 객관적 정답 유무와 사회적 관계 조건 별로 아동의 동조율의 기술통계치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아동은 평균 0.26의 동조율을 보였다. 모든 아동이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각각 세 번의 테스트 시행을 받았으므로, 이는 총 6번의 테스트 시행 중 평균 1.56번의 시행에서 아동이 동조했고 나머지 4.44번의 시행에서 의견을 유지했음을 뜻한다. 이를 객관적 응답의 유무에 따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아동은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0.33의 동조율을 보여 세 번의 테스트시행 중 0.99번의 시행에서 동조하였다.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0.19의 동조율을 보여 세 번 중 평균 0.57번 동조했다.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는 등짐 조건에서 동조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1인 조건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물체 조건과 마주봄 조건에서 유사하게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반면,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물체 조건, 마주봄 조건, 등짐 조건에서 모두 동조율의 평균이 비슷하였고, 1인 조건은 그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림 V-1>을 살펴보면, 개인적 선호 영역보다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아동의 동조율이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각적 판단의 중앙값이 0.33인데 반해 개인적 선호에서 동조율의 중앙값은 0.00이다. 이는 절반 이상의 아동이 한 번도 동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세 전후의 아동은 개인적 선호 영역보다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특히 사회적 배척 관계에 노출된 후에 특히 더 많이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동조와 우연수준의 비교

<표 V-2> 아동의 동조율과 우연수준의 비교

(N = 80)

영역	사회적 점화 조건	$M(SD)$	Z
지각적 판단	물체	0.23(0.31)	2.46**
	1인	0.35(0.37)	1.57
	마주봄	0.22(0.31)	2.46**
	등짐	0.50(0.33)	-0.22
	전체	0.33(0.34)	3.24***
개인적 선호	물체	0.18(0.30)	2.91***
	1인	0.25(0.32)	2.01*
	마주봄	0.17(0.30)	2.91***
	등짐	0.17(0.25)	2.91***
	전체	0.19(0.29)	5.70***
전체		0.26(0.25)	6.82**

**p < .01, ***p < .001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율을 이항검정으로 우연수준(0.5)과 비교한 결과 <표 V-2>와 같이 아동의 동조율은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Z = 6.82, df = 79, p < .01). 이는 2.5세에서 3.5세 아동이 자신과 다수의 의견이 다를 때 동조하기보다 의견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큼을 나타낸다. 의견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율과 (Z = 3.24, df = 79, p = .001),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율 모두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Z = 5.70, df = 79, p < .001).

다음으로 사회적 점화 조건별로 살펴보면,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1인 조건(Z = 1.57, df = 79, p = 0.12)과 등짐 조건(Z = -0.22, df = 79, p = 0.82)을 제외한 모든 점화 조건에서 아동의 동조율은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등짐 조건의 경우 우연수준과 동조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각적 판단 영역의 등짐 조건은 동조한 비율과 동조하지 않은 비율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2.5세에서 3.5세 아동은 의견 영역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수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보다 의견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황이나 사회적 배척 관계에 노출된 후에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절반의 확률로 다수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의 차이

다음으로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가 객관적 응답의 유무(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V-3> 객관적 정답 유무에 따른 동조의 차이

의견 영역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Z
	사례수	평균 순위	순위합	사례수	평균 순위	순위합		
지각적 판단 / 개인적 선호	33	22.73	750.00	12	23.75	285.00	35	-2.70^{**}

$^{**}p<.01$

<표 V-4> 지각적 판단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동조한 아동의 수 분포

	총 세 번의 시행 중 아동이 동조한 시행의 수				전체
	0	1	2	3	
지각적 판단 영역	35명 (43.8%)	20명 (25.0%)	17명 (21.3%)	8명 (10.0%)	80명
개인적 선호 영역	51명 (63.8%)	15명 (18.8%)	11명 (13.8%)	3명 (3.8%)	80명

그 결과, <표 V-3>과 같이 개인적 선호보다 지각적 판단의 영역에서 동조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 = -2.70, p = .007). 이러한 차이는 의견을 유지한 아동의 수에서도 나타났다. <표 V-4>와 같이, 한 번 이상 동조한 아동의 수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45명(56.3%),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29명(36.4%)이었다.

즉, 자신과 다수의 의견이 다를 때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는 객관적 응답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보다는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하였다.

3. 사회적 관계에 따른 점화의 차이

마지막으로,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가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점화되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아동의 동조가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대다수 아동이 동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객관적 정답의 유무(지각적 판단 영역, 개인적 선호 영역)에 따라 사회적 점화에 따른 동조율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

<표 V-5>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의 차이

구분	*n*	*M(SD)*	*MR*	X^2	Post-hoc
물체 조건[a]	20	0.23(0.31)	34.70	9.18*	c<d
1인 조건[b]	20	0.35(0.37)	41.93		
마주봄 조건[c]	20	0.22(0.31)	33.33		
등짐 조건[d]	20	0.50(0.33)	52.05		

*p<.05, MR: 평균 순위

<표 V-5>는 점화 조건별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노출에 따른 동조율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동조율은 어떤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X^2 = 9.18, p = .03).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짐 조건과 마주봄 조건의 동조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U = 112.00, p = .02), 다른 조건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3세 전후 아동의 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에서의 동조는 인물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에 노출되었을 때에 비해 인물들이 서로 등지고 있는 장면에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이 점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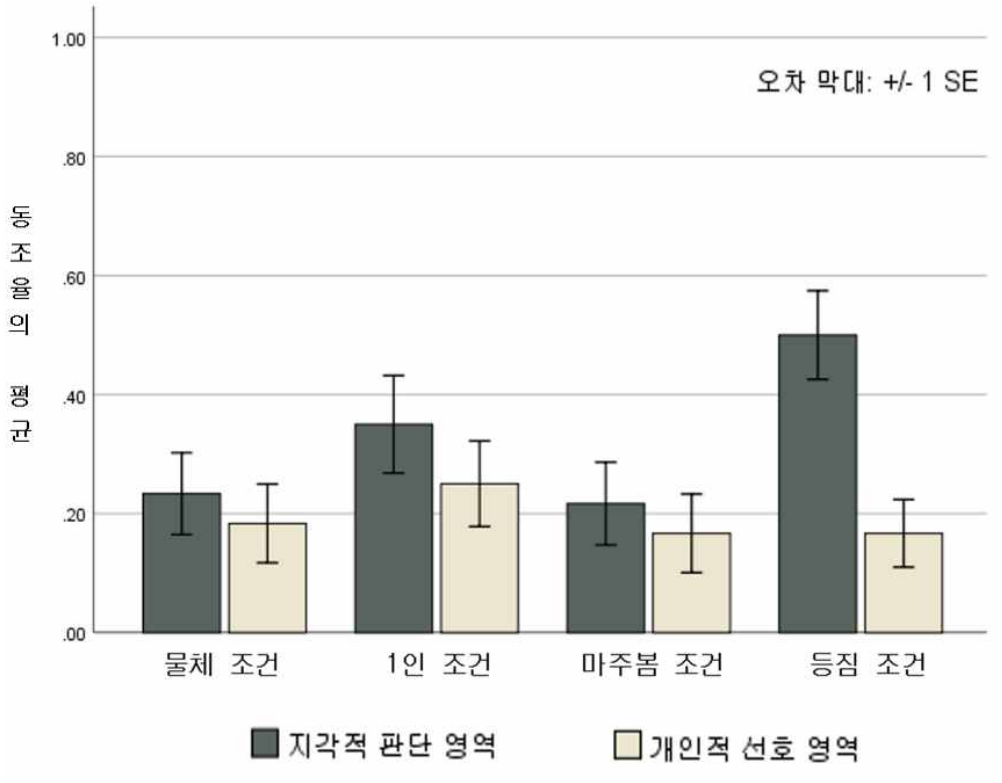
2) 객관적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점화

<표 V-6>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의 차이

구분	n	$M(SD)$	MR	X^2	Post-hoc
물체 조건[a]	20	0.18(0.30)	39.85	1.13	-
1인 조건[b]	20	0.25(0.32)	44.45		
마주봄 조건[c]	20	0.17(0.30)	38.20		
등짐 조건[d]	20	0.17(0.25)	39.50		

*p<.05

<표 V-6>는 점화 조건별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노출에 따른 동조율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율은 어떤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 = 1.13, p = .77). 즉, 3세 전후 아동의 객관적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의 동조는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는 것에 점화되지 않았다.



<그림 V-2> 객관적 정답의 유무와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율 평균

종합하면, <그림 V-2>와 같이 2.5세에서 3.5세 아동은 객관적 정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보다는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한다. 특히, 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에서 아동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암시하는 인물들이 마주보는 장면보다 사회적 배척 관계를 암시하는 인물들의 등진 장면에 노출된 후에 점화되어 더 많이 동조하였다.

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3세 전후인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조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동조율이 객관적 응답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다르게 점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연결지어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정답이 있는 영역인 지각적 판단과 객관적 정답이 없는 영역인 개인적 선호에서 3세 전후의 아동은 동조하여 자신의 원래 의견을 바꾸기보다 원래 의견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인(Asch, 1956)이나 4세 아동(Haun & Tomasello, 2011), 3, 4세 아동(Corriveau & Harris, 2010)에서 우연수준보다 낮은 동조율이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즉,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도 동조를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2.5세에서 3.5세 아동이 비록 어리더라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영역(어떤 것이 똑같은 그림인지)과 개인적 선호 영역(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에서 타인을 따라 의견을 바꾸는 데에 성인만큼이나 보수적이고 신중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보인 동조율은 성인과 4세 아동이 선행연구의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보인 동조율과 매우 유사하다(Asch, 1956; Haun & Tomasello,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성인의 동조율이 3세 전후의 아동기에도 이미 나타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한 가지 새로운 발견은 2.5세에서 3.5세 아동의 동조율이 객관적 응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객관적 응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 영역 간에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세 전후 아동은 개인적 선호 영역보다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더 많이 동조하였는데, 이

는 Sun과 Yu(2016)가 응답에 정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아동의 동조율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데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적 판단은 주어진 보기와 같은 모양을 고르도록 하여 객관적 정답이 있었고,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여 객관적 정답이 없었다. 하나의 정해진 옳은 답이 있을 경우 구성원 간에 응답이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그 결과 아동이 다수의 응답과 일치하는 답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이 다수와 다른 답을 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고립될 수 있다. 2, 3세 아동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고립을 민감하게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예: Botto & Rochat, 2019). 따라서 동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하나의 정해진 옳은 답이 없는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각자 다른 응답이 가능하다. 연구에 따르면, 2세 아동은 선호의 주관성을 이해하여 자신과 타인의 선호가 다를 수 있으며 선호는 사람 특정적(person specific)이라는 것을 안다(Buresh & Woodward, 2007; Fawcett & Markson, 2010; Ma & Xu, 2011).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3세 전후 아동들도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다수와 같은 답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3세 전후의 아동이 객관적 정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보다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에 노출된 후 더 많이 동조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더 많이 동조했다는 결과(Williams et al., 2000)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모양들이 하나를 따돌리는 영상을 본 아동은 모양들이 모두 함께 다니는 영상을 본 아동보다 상대방의 얼굴표정(2.5세)과 행동(3세)을 더 많이 모방했다는 결과(de Klerk et al., 2020; Watson-Jones et al.,

2014)와도 동일 선상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설명을 본 연구 결과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즉, 동조는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척 자극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배척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여 더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Watson-Jones et al., 2014). 반대로, 두 인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은 이미 사회적 유대가 형성된 모습을 암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배척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게 했을 수 있다. 그 결과 동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사진자극을 사용한 선행연구(Over & Carpenter, 2009a)의 마주봄 조건에서 아동의 돕기 행동이 다른 모든 조건들보다 많이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본 연구에서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돕기 행동의 경우 주요한 동기가 사회적 배척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보다는 두 인물이 서로를 마주보는 장면은 사회적 유대를 암시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돕기 행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했을 수 있다. 반면, 동조는 사회적 배척을 피하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동기가 강한데, 두 인물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장면이 사회적 배척을 암시하여 더욱 사회적 압력에 대한 주의를 증가시켰을 수 있다. 이는 돕기 행동과 동조 행동의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적 판단 영역과 달리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따른 동조 점화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는 평균 동조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 그리고 연구참여 아동 80명 중에서 과반수가 단 한 번도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선호 영역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응답이

가능하다는 의견 영역의 영향이 매우 강해서 배척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그 결과 동조율이 매우 낮아서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3세 전후의 아동은 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자신의 의견을 쉽사리 바꾸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이든 아동과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동조 행동을 보인다. 게다가 아동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관해서는 동조를 더욱 적게 하고, 그에 비해 한 가지 정해진 답이 있는 지각적 판단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동조한다. 이러한 지각적 판단의 상황에서 아동의 동조는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장면보다 사회적 배척을 나타내는 장면에 의해 더 많이 촉진된다. 이는 사회적 배척의 회피가 아동의 동조에 중요한 동기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한국 아동에게 한정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동조는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인류의 특징이지만, 문화마다 다른 빈도와 경향성을 보인다. Kim과 Markus(1999)는 동아시아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유럽계 미국인)에서의 동조의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도형, 펜 선택 등 여러 방법으로 동조 경향성을 확인하였을 때, 동아시아권 사람들은 타인을 따르는 동조를 선호하고,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독특함(uniqueness)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Clegg와 동료들(2017)의 연구에서는 여러 특이점을 갖고 있는 부족인 Ni Vanuatu와 미국 문화에서 동조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목적(목걸이 만들기)을 수행할 때, 시연자에게 동조하는 사람과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여주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Ni Vanuatu 부족의 성인은 동조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미국의 성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룬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화 간 차이로 인해 3세 전후의 아동에게서도 동조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문화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답의 유무에 따른 동조 경향의 차이와 동조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3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 정답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지만, 보다 다양한 동조의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또래를 다수로 제시했는데, 만약 다수가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으로 제시되었다면 더 높은 동조율을 보일 수 있다(McGuigan & Stevenson, 2016; Zmyj et al.,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객관적인 정답을 명확히 아는 과제로 동조를 확인하였지만, 만약 아동이 정답을 잘 모르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거나 정답이 애매한 경우에는 더 높은 동조율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는 과제의 여러 특성에 따라 동조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Enjaian과 동료들(2017)은 과제의 어려움이 높아지면 성인의 동조율이 높아짐을 발견했고, Hertz와 Wiese(2016)는 과제가 애매할수록 성인이 더 많이 동조함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처럼 동조의 대상이나 과제의 난이도 및 애매함의 정도 등을 조작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2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답 유무에 따른 영역(지각적 판단, 개인적 선호) 당 세 번의 시행을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행을 실시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더 높여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되어 연구의 결과가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2021 전국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3에서 5세 아동의 경우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60.9%로 2018년에 63.5%였던 것

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연구자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일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12분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2021). 또한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에 2, 3세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지 못한 날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의 동일 연령 아동에 비해 기관을 통한 또래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보인 것보다 더 높은 동조율이나 더 강한 사회적 동기를 보일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동조가 또래 집단과의 경험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은 3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동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2세에서 3세 아동의 동조를 객관적 정답 유무에서 차이가 나는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2세아의 동조는 지식 습득의 영역에서만 조사되어 지각적 판단 영역과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율은 알려지지 않았고(Haun & Tomasello, 2011), 4세 이상 아동과는 달리 3세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가 연구되지 않았다(Corriveau & Harris, 2010). 본 연구는 2세와 3세의 지각적 판단 및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경향을 확인하여 각 영역의 동조율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한 가지의 영역에서의 동조만을 살펴보았고, 영역 혹은 객관적 정답 유무에 따라 아동의 동조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추측(Sun & Yu, 2016)만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동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아동의 동조율이 영역간 차이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2세에서 3세 아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해 동조

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여 이 시기 동조의 사회적 동기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동조 여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이 더 현저하지 않도록 했고, 다수의 또래의 영상으로 제시하여, 직접 시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연자의 오류 및 차이를 통제하였다. 또한, 사회적 점화를 사용하고, 점화 자극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사회적 동기로 동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척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동조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3세 전후 아동의 동조 행동 및 동조의 동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 아동들도 객관적 정답이 있을 때 압력을 느끼고 사회적 배척을 피하기 위해 동조한다는 사실은 3세 전후의 어린 아동도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존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0*(9, Whole No. 416).

Bargh, J.A., & Chartrand, T.L. (2000). The mind in the middle: A practical guide to priming and automaticity research. In Reis, H.T., & Judd, C.M.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p. 253-285).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Botto, S. V., & Rochat, P. (2019). Evaluative audience perception (EAP): How children come to care about reput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3*(3), 180-185.

Boyd, R., & Richerson, P. J. (1988). *Culture and the evolutionary proc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resh, J. S., & Woodward, A. L. (2007). Infants track action goals within and across agents. *Cognition, 104*(2), 287-314.

Chartrand, T. L., & Bargh, J. A. (1996). Automatic activation of impression formation and memorization goals: Nonconscious goal priming reproduces effects of explicit task instru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64-178.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1), 591-621.

Clegg, J. M., Wen, N., & Legare, C. H. (2017). Is non-conformity WEIRD? Cultural variation in adults' beliefs about children's competency and conformi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3), 428-441.

Cordonier, L., Nettles, T., & Rochat, P. (2018). Strong and strategic conformity understanding by 3 and 5 year ol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438-451.

Corriveau, K. H., & Harris, P. L. (2010). Preschoolers (sometimes) defer to the majority in making simple perceptu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437-445.

Corriveau, K. H., Fusaro, M., & Harris, P. L. (2009). Going with the flow: Preschoolers prefer nondissenters as informants. *Psychological Science, 20*(3), 372-377.

de Klerk, C., Albiston, H., Bulgarelli, C., Southgate, V., & Hamilton, A. (2020). Observing third-party ostracism enhances facial mimicry in 30-month-old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96,* 104862.

Enjaian, B., Zeigler-Hill, V., & Vonk, J.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val-based contingent self-esteem and conformity is influenced by sex and task difficul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5,* 58-64.

Fawcett, C. A., & Markson, L. (2010). Similarity predicts liking in 3-year-old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5*(4), 345-358.

Gaither, S. E., Apfelbaum, E. P., Birnbaum, H. J., Babbitt, L. G., & Sommers, S. R. (2018). Mere membership in racially diverse groups reduces conform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4), 402-410.

Haun, D. B., & Tomasello, M. (2011). Conformity to peer pressur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6), 1759-1767.

Haun, D. B., Rekers, Y., & Tomasello, M. (2014). Children conform to the behavior of peers; other great apes stick with what they know. *Psychological Science, 25*(12), 2160-2167.

Hertz, N., & Wiese, E. (2016). Influence of agent type and task ambiguity on conformity in social decision making. In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Vol. 60, No. 1, pp. 313-317). SAGE Publications.

Hwang, H. G., Marrus, N., Irvin, K., & Markson, L. (2017). Three-year-old children detect social exclusion in third-party interac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8*(5), 515-529.

Jiang, Y., Bong, M., & Kim, S. I. (2015). Conformity of Korean adolescents in their percep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41-54.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800.

Lakin, J. L., & Chartrand, T. L. (2003). Using nonconscious behavioral mimicry to create affiliation and rapport. *Psychological Science, 14*(4), 334-339.

Lane, J. D., Conder, E. B., & Rottman, J. (2020). The influence of direct and overheard messages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novel social groups. *Child Development, 91*(3), 829-845.

Ma, L., & Xu, F. (2011). Young children's use of statistical sampling evidence to infer the subjectivity of preferences. *Cognition, 120*(3), 403-411.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McGuigan, N., & Stevenson, A. (2016). Does the age and familiarity of the informant group influence the tendency of 3-and 4-year-old children to confor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7*(4), 122-130.

Morgan, T. J., Laland, K. N., & Harris, P. L. (2015). The development of adaptive conformity in young children: Effects of uncertainty and consensus. *Developmental Science, 18*(4), 511-524.

Nielsen, M. (2006). Copying actions and copying outcomes: Social learning through the second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42*(3), 555-565.

Over, H. (2016). The origins of belonging: Social motiv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Philosophical Transactions B: Biological*

Sciences, 371(1686), 1-8.

Over, H., & Carpenter, M. (2009a). Eighteen-month-old infants show increased helping following priming with affiliation. *Psychological Science, 20*(10), 1189-1193.

Over, H., & Carpenter, M. (2009b). Priming third party ostracism increases affiliative imitat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12*(3), F1-F8.

Rekers, Y., Haun, D. B., & Tomasello, M. (2011). Children, but not chimpanzees, prefer to collaborate. *Current Biology, 21*(20), 1756-1758.

Schillaci, R. S., & Kelemen, D. (2014). Children's conformity when acquiring novel conventions: The case of artifact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5*(4), 569-583.

Song, R., Over, H., & Carpenter, M. (2015). Children draw more affiliative pictures following priming with third-party ostracism. *Developmental Psychology, 51*(6), 831-840.

Spitz, R. A., & Wolf, K. M. (1946). Anaclitic depression: An inquiry into the genesis of psychiatric conditions in early childhood, II.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1), 313-342.

Sun, S., & Yu, R. (2016). Social conformity persists at least one day in 6-year-old children. *Scientific Reports, 6*(1), 1-9.

Tomasello, M. (2019). *Becoming human.* Harvard University Press.

Trevarthen, C. (1990). Signs before speech. In Sebeok, T.A. , & Umiker-Sebeok, J. (eds), *The semiotic web* (pp. 689-755). Mouton de Gruyter.

Tronick, E. (2007). *The neurobehavior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and children. WW Norton & Company.

Van Leuween, E. J., Kendal, R. L., Tennie, C., & Haun, D. (2016). Conformity and its look-a-likes. *Animal Behaviour, 110,* e1-e4.

Vollmer, A. L., Read, R., Trippas, D., & Belpaeme, T. (2018). Children conform, adults resist: A robot group induced peer pressure on normative social conformity. *Science Robotics, 3*(21), eaat7111.

Walker, M. B., & Andrade, M. G. (1996). Conformity in the Asch task as a function of ag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3), 367-372.

Watson-Jones, R. E., Legare, C. H., Whitehouse, H., & Clegg, J. M. (2014). Task-specific effects of ostracism on imitative fidelity in early childhood.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5*(3), 204-210.

Weingarten, E., Chen, Q., McAdams, M., Yi, J., Hepler, J., & Albarracín, D. (2016). From primed concepts to action: A meta-analysis of the behavioral effects of incidentally presented words. *Psychological Bulletin, 142*(5), 472-497.

Wen, N. J., Clegg, J. M., & Legare, C. H. (2019). Smart conformists: Children and adolescents associate conformity with intelligence across cultures. *Child development, 90*(3), 746-758.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Yang, L., & Park, Y. (2022). Group membership trumps shared preference in five-year-olds' resource allocation,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evalu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Yiend, J. (2010). The effects of emotion on attention: A review of attentional processing of emotional information. *Cognition and Emotion, 24*(1), 3-47.

Zhang, P., Zhang, Y., Mu, Z., & Liu, X. (2017). The development of conformity among Chinese children aged 9–15 years in a public choice task. *Evolutionary Psychology, 15*(4).

Zhao, L., Heyman, G. D., Chen, L., & Lee, K. (2018). Telling young children they have a reputation for being smart promotes cheating. *Developmental Science, 21*(3), 1-8.

Zmyj, N., Buttelmann, D., Carpenter, M., & Daum, M. M. (2010). The reliability of a model influences 14-month-olds' imi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6*(4), 208-220.

<부록 1> 아동용 구두설명 보조자료

<부록 2> 연구자용 응답 기록지

연구 기록지

연구참여자 ID:_____ 참여 일시:_____ 연구원:_____

1. 참여자의 기본 정보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남/여)
2. 확인단계 (A / B)
3. 설문지 응답: (O / X)
4. 결과표

지각적 판단 문제 번호	동영상	유아의 답
확인	(네모 / 곰)	(네모 / 곰)
1	네모	(세모 / 네모)
2	동그라미	(세모 / 동그라미)
3	원숭이	(원숭이 / 곰)
4	사자	(원숭이 / 사자)

개인적 선호 문제 번호	기존 선호	새로운 선호
1	(공 / 끼우기)	(공 / 끼우기)
2	(곰인형 / 목마)	(곰인형 / 목마)
3	(토끼 / 고슴도치)	(토끼 / 고슴도치)
4	(강아지 / 게)	(강아지 / 게)

<부록 3> 연구자용 대본

점화단계

물체 조건의 사진자극	1인 조건의 사진자극
인형과 같은 크기의 블록이 놓여 있음. 비사회적 관계 암시.	한 명의 사람이 서 있음. 상호작용할 타인이 없음 암시.
마주봄 조건의 사진자극	등짐 조건의 사진자극
두 명의 사람이 마주 보고 있음. 사회적 유대 관계 암시.	두 명의 사람이 등지고 있음. 사회적 배척 관계 암시.

연구자: ○○(이)야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게임을 할 거야. 그런데 게임을 하기 전에 ○○(이)랑 사진을 볼 거야. 이 사진에는 ○○(이)가 많이 보았던 물건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 물건의 이름하고 색깔, 사용법을 말해줄게. 잘 들어봐. 지금 시작해도 될까?

아 동: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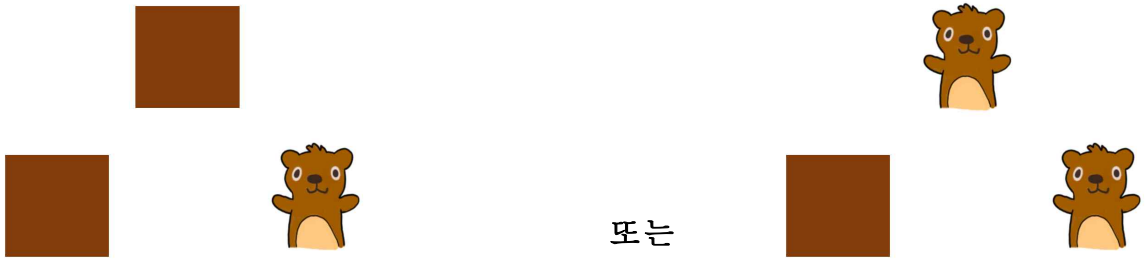
연구자: 자, 이제 시작할게.

(사진을 화면에 띄우며) 이건 주전자에요. 이 주전자는 빨간색이고, 물을 끓일 때 써요.

(이후 8장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며 설명함.) 오늘 선생님이랑 볼 사진은 여기까지야. 이제 선생님이랑 게임을 할 거야. 똑같은 모양 찾기 게임이랑 좋아하는 것 찾기 게임을 해볼까?

아 동: (대답)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확인 문항



연구자: 자, ‘똑같은 모양 찾기’게임을 할 거야. 여기 3개의 모양이 있지?

아 동: (대답)

연구자: 이 게임은 똑같은 모양을 찾는 게임이야. 이거(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모양을 가리키며)랑 똑같은 모양은 어떤거야?

아 동: (똑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을 말하거나 손으로 가리켜 대답함.)

연구자: ○○(이)는 네모(또는 곰)가 이 모양(가장 위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아 동: (대답. 만일 아니라고 할 경우, 바꿀 기회를 줌.)

연구자: (정답인 경우) 그렇구나. ○○(이)가 지금 골라준 것처럼 다음 문제들에서도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돼.
(오답인 경우) 그렇구나. (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그림과 아동이 똑같다고 답한 모양을 함께 가리키며)이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아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아동이 오답을 말하면 그대로 연구 진행하지만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연구자: 지금 ○○(이)가 말해준 것처럼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양들 중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볼 거야. 그런데 다음 문제들에서는 ○○(이)랑 똑같은 나이의 남자/여자 친구들이 어떤 것을 똑같다고 골랐는지 영상으로 확인한 후에 답을 고를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동: (대답. 만약 모르겠다고 하면 다시 설명함.)

연구자: 만약 어렵거나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야기 해줘. 자, 이제 시작할게.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1번(중립 문항)

연구자: 자, 여기 새로운 모양이 있어. 이번에는 이거(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네모를 가리키며)랑 똑같은 모양은 어떤 거야?

아 동: (대답)

연구자: (네모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는 네모가 이 모양(가장 위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세모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 두 개(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네모와 세모를 함께 가리키며)가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번에는 아까 말한대로 나이가 같은 남자/여자 친구 3명이 어떤 걸 골랐는지 먼저 영상으로 볼거야. 친구들이 어떤 걸 골랐는지 잘 보고 알려줘.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모양이 똑같다고 골랐어?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은 네모가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했구나.

(다시 문제를 보여주며)○○(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이)는 네모(또는 세모)가 위에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다음 문제도 보여줄게.

아 동: (대답)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2번

연구자: 이번에도 새로운 모양들이 있어. 이번에는 이거(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세모를 가리키며)랑 똑같은 모양은 어떤 거야?

아 동: (대답)

연구자: (세모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는 세모가 이 모양(가장 위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동그라미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 두 개(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세모와 동그라미를 함께 가리키며)가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번에는 3명의 친구들은 어떤 걸 골랐는지 보여줄게. 친구들이 어떤 게 똑같다고 했는지 잘 보고 알려줘.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친구들은 어떤 모양이 똑같다고 대답했어?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은 동그라미가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했구나.

(다시 문제를 보여주며)○○(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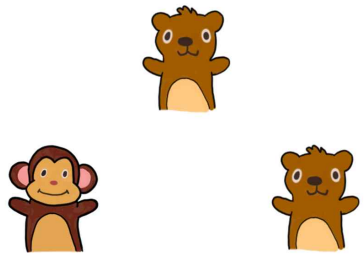
연구자: 아~, ○○(이)는 동그라미(또는 세모)가 위에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아 동: (대답)

연구자: 다음 문제에는 어떤 모양들이 나오는지 보여줄게.

아 동: (대답)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3번



연구자: 이번에는 동물들이 있네. 이거(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곰을 가리키며)랑 똑같은 모양은 어떤 거야?

아 동: (대답)

연구자: (곰을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는 곰이 이 모양(가장 위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원숭이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 두 개(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곰과 원숭이를 함께 가리키며)가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동물이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하는지 영상을 보여줄게. 이번에도 친구들이 어떤 동물 인형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고 알려줘.

아 동: (대답. 만약 친구들이 곰이 똑같다고 답했다고 응답하는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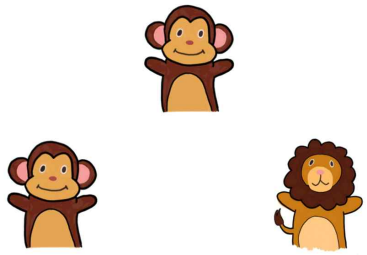
연구자: 친구들은 원숭이가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했구나.
(다시 문제를 보여주며)○○(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이)는 원숭이(또는 곰)가 위에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다음 문제도 보여줄게.

아 동: (대답)

지각적 판단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4번



연구자: 자, 이번에도 동물이 나왔네. 이거(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원숭이 인형을 가리키며)랑 똑같은 모양은 어떤 거야?

아 동: (대답)

연구자: (원숭이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는 원숭이가 이 모양(가장 위의 모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랑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사자를 선택한 경우) 그렇구나. 이 두 개(손가락으로 가장 위의 원숭이와 사자를 함께 가리키며)가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동물이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하는지 영상을 보여줄게. 이번에도 친구들이 어떤 동물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잘 봐봐.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동물이 똑같다고 대답했어?

아 동: (대답. 만약 친구들이 원숭이가 똑같다고 답했다고 응답하는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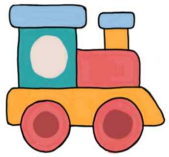
연구자: 친구들은 사자가 위에 모양하고 똑같다고 했구나.

(다시 문제를 보여주며)○○(이)는 어떤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이)는 원숭이(또는 사자)가 위에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자, 이제 똑같은 모양 찾기 게임은 끝났어.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확인 문항



연구자: 자, 이번에는 좋아하는 것 고르기 게임을 할 거야. 화면에 장난감 그림 두 개가 있지? ○○(이)는 둘 중에 어떤 장난감이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자동차(또는 기차)가 더 좋구나!

아 동: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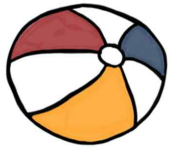
연구자: 우리 이번에는 지금 한 거처럼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게임을 할거야. 그런데 다음 문제들에서는 아까 게임처럼 ○○(이)랑 똑같은 나이인 남자/여자 친구들 3명이 어떤 걸 똑같다고 골랐는지 영상으로 확인한 후에 답을 골라볼 거야. 알겠지?

아 동: (대답, 만약 아동이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다시 설명해줌.)

연구자: 만약 어렵거나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줘. 자, ○○(이)가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알려줘.

아 동: (대답)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1번(중립 문항)



연구자: 여기 링 끼우기랑 공이 있어. 두 장난감 중에 ○○(이)가 좋아하는 건 뭐야?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는 링 끼우기(또는 공)가 좋구나. ○○(이)랑 나이가 같은 남자/여자 친구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친구들은 어떤 장난감이 더 좋다고 했어?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도 링 끼우기(또는 공)가 좋다고 대답했구나. 그럼 ○○(이)는 두 장난감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이)는 링 끼우기(또는 공)가 더 좋구나.
아 동: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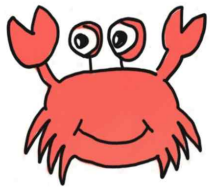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2번

연구자: 이번에는 곰인형이랑 목마가 있어. ○○(이)는 두 장난감 중에 어떤게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는 곰인형(또는 목마)이 좋구나. 다른 친구들은 어떤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친구들은 어떤 장난감이 더 좋다고 했어?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은 목마(또는 곰인형)가 좋다고 대답했구나. 그럼 ○○(이)는 두 장난감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아~, ○○(이)는 곰인형(또는 목마)이 더 좋구나. 다음 문제에서는 동물들이 나온대. 어떤 동물들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볼까?
아　동: (대답)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3번

연구자: 토끼랑 고슴도치가 있어. ○○(이)는 어떤 동물이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는 토끼(또는 고슴도치)가 좋구나. 다른 친구들은 어떤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볼까?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친구들은 어떤 동물이 더 좋대?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은 고슴도치(또는 토끼)가 좋구나. ○○(이)는 두 동물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는 토끼(또는 고슴도치)가 더 좋구나.
아 동: (대답)

개인적 선호 영역에서의 동조 과제 - 4번



연구자: 이번에는 강아지랑 게가 있어. ○○(이)는 두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더 좋아?
아　동: (대답)
연구자: ○○(이)는 강아지(게)가 좋구나.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지 봐봐.
아　동: (대답)
연구자: (영상을 보여준 후) 영상에 속의 친구들은 어떤 동물이 더 좋다고 했어?
아　동: (대답. 만약 틀린 답을 말할 경우 영상을 다시 보여주어 또래의 선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연구자: 친구들은 게(강아지)가 좋다고 대답했구나. ○○(이)는 두 동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아　동: (대답. 만약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경우, 보호자가 모양을 말로 표현해주도록 함.)
연구자: ○○(이)는 강아지(게)가 더 좋구나.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게임은 여기까지야. ○○(이)는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한 거 어땠어?
아　동: (대답)

Abstract

Conformity of Children Around the Age of Three Years Following Social Priming

Lee, You S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compared children's conformity in perceptual judgments and personal preferences at around age three years.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children's conformity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priming.

Eighty-eight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5 and 3.5 years participated. They were exposed to photographs of non-social objects (i.e., stacks of blocks), a single doll, two dolls facing each other in close proximity, or two dolls standing back to back, depending on the conditions that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n, they were given conformity tasks, in which they were asked to choose the same shape as the sample (the perceptual

judgment task), or to choose the one that they liked better (the personal preference task).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6.0. Descriptive statistics, binomial tests, paired-sample Wilcoxon signed-rank tests, Mann-Whitney U tests and Kruskal-Wallis tests were employ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Overall,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maintain their opinions, rather than conforming to the majority's opinion. Nevertheless, children conformed more in the area of perceptual judgments than in the area of personal preference. In the area of perceptual judgments, children primed with social ostracism (the back-to-back dolls) were more likely to conform than those primed with social affiliation (the face-to-face dolls). However, children's conformity in the area of personal preference did not differ across the different types of social priming.

Th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around age three may conform more when there is supposed to be one single objectively correct answer than when multiple answers are possible.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voiding social exclusion may be a key motivation for young children's conformity.

Key Words: conformity, objective answers, social relations, social priming, children around age three

Student Number: 2020-21331